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001, Vol. 10, 159-174

## 노인교육 수강자와 비수강자의 노인교육프로그램 요구조사

허명숙

송죽평생문화원

조유향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김학렬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김기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요약)**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밝혀서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50대 중반에서 80대에 해당되는 282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로부터 사회참여 정도 및 희망사항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조사를 했다. 대부분의 조사내용을 성별과 노인교육 수강여부에 따라서 비교해보았지만, 교육수준이나 연령 등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특성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심하여 조사내용을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몇 가지 사항들이 정리될 수 있었

---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34-701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419번지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유향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e-mail 주소는 yhcho@chodang.ac.kr입니다.

는데, 우선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비수강자 집단에서 그러한 면이 특히 두드러졌으며, 그들은 앞으로의 참여 의사도 높지 않는 편이었다. 이상의 조사결과들은 아마도 교육수준이나 건강상태들과 관련될 수도 있었다는 맥락에서 고찰되었다.

[Key Words: 교육요구, 노인교육, 사회교육, 사회활동, 여가활동]

인생의 주기 중에서 가장 많은 여가를 보내야하는 시기는 바로 노년기이다. 중년기까지의 여가는 의무적이거나 시간에 쫓기는 업무에서 벗어나는 자유시간으로 재생산의 수단이나 피로회복의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비하여, 노인들의 경우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무료한 시간 속에서 외롭게 지낼 정도로 여가시간이 많은 편이다. 또 노인들은 비록 자녀들에 의해서 부양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할상실 등에서 기인하는 여가시간으로 발생하는 무료함과 고독감 등이 오히려 심각한 노인문제로 전락할 정도가 되었다 (윤진, 1986; 임춘식, 1985).

일부 노인들은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미나 오락활동, 학습활동 등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시간을 보내지만, 대다수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할지언정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사회 및 사회단체 또는 정부에서는 복지시설을 제공하거나 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강욱모, 2000; 김종서·남정길·정지웅·이용환, 1982; 정중식, 1997).

노인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들로는 노인정, 노인대학, 노인학교,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등을 들 수 있는데, 노인정에 대한 이용 및 인지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즉 95.4%의 노인들이 노인정을 알고 있으며, 이용하는 비율도 47.6%에 달하고 있고, 또 나중에 이용하기를 희망한다는 비율도 45.8%이었다. 반면에 노인학교나 노인대학을 인지하는 비율은 75.4%이었지만, 참석해본 경험이 있다는 노인은 9.1%에 불과하고, 또 앞으로 참석하겠다는 비율은 18.2%에 지나지 않았다 (아산복지사업재단, 1985; 정경배, 1999).

노인들의 여가활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가교육으

## 노인교육 프로그램 요구

로 행해지는 노인체육활동이 건강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수단에 해당되므로 노인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원영신, 1997), 노인학교나 노인대학에 참석한 노인들이나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취미, 교양에 대한 요구나 만족이 어느 정도인가를 토대로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하려는 연구도 있지만 (이세용, 1990; 이철우, 1990; 한명진, 1992),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노인교육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교육에 참석해본 경험이 있는 노인들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의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요구가 어느 정도 다른지, 또 두 집단이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의 참여실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노인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교육 수강자와 비수강자 집단을 토대로 노인의 일반특성과 건강상태를 비교하고,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참여실태의 경향을 비교하며, 그리고 노인의 교육요구와 교육프로그램의 선호경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 조 사 방 법

조사대상자 중에서 과거에 사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수강자 집단은 전남 순천시 노인회 부설 노인대학이나 송죽평생문화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120명이었으며, 비수강자집단은 순천시에 거주하고 송죽평생문화원을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덕연동 및 왕조동의 165개 통에서 집락 추출한 14개 통에 거주하는 연령이 55세 이상인 자 162명이었다. 조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13문항,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에 관한 4문항, 건강상태에 관한 5문항,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11문항, 그리고 세대간의 교류에 관련된 7문항 등 모두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은 조사목적에 따라 연구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예비조사 등을 거쳐서 두 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쳐서 작성된 것들이었다. 또 자료의 수집은 4명의 대학생이 2000년 9월에 조사대상

자의 가정이나 교육기관을 방문할 때 조사표에 본인이 직접 기록하거나 대학생 면접자가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기록한 방식을 취했다.

## 조 사 결 과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연령분포는 비수강자 집단의 경우 남녀 모두 60대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수강자 집단의 경우 남성은 60대 그리고 여성은 7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에서는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여성은 배우자가 없는 상태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었다. 교육수준을 보면, 남성 수강자 집단에서만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n$  (%)]

| 변 수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 비수강자      | 수강자       | 비수강자      | 수강자       |
| 연령<br>(세) | 50-59 | 25 (34.7) | 6 (13.4)  | 27 (30.0) | 5 (6.7)   |
|           | 60-69 | 29 (40.3) | 23 (51.1) | 33 (36.7) | 25 (33.3) |
|           | 70-79 | 15 (20.8) | 14 (31.1) | 19 (21.1) | 38 (50.7) |
|           | 80+   | 3 (4.2)   | 2 (4.4)   | 11 (12.2) | 7 (9.3)   |
| 결혼상태      | 유배우   | 44 (62.0) | 39 (86.7) | 34 (38.2) | 29 (38.0) |
|           | 무배우   | 28 (38.0) | 6 (13.3)  | 56 (61.8) | 46 (62.0) |
| 교육정도      | 무학    | 7 (9.7)   | 3 (6.7)   | 25 (27.8) | 26 (34.7) |
|           | 초등    | 36 (50.0) | 4 (8.9)   | 41 (45.6) | 28 (37.3) |
|           | 중학    | 9 (12.9)  | 10 (22.2) | 20 (22.2) | 11 (14.7) |
|           | 고등    | 20 (27.8) | 28 (62.2) | 4 (4.4)   | 10 (13.3) |
| 종교        | 없다    | 42 (58.3) | 19 (42.2) | 49 (55.1) | 18 (23.0) |
|           | 기독교   | 22 (30.6) | 11 (24.4) | 22 (24.7) | 22 (29.7) |
|           | 불교    | 5 (6.9)   | 9 (20.0)  | 14 (15.7) | 28 (37.8) |
|           | 천주교   | 3 (4.2)   | 6 (13.3)  | 4 (4.5)   | 7 (9.5)   |
| 직업        | 있다    | 35 (48.6) | 22 (57.9) | 10 (11.1) | 14 (18.7) |
|           | 없다    | 37 (51.4) | 23 (42.1) | 80 (88.9) | 61 (81.3) |
| 계         |       | 72(100.0) | 45(100.0) | 90(100.0) | 75(100.0) |

## 노인교육 프로그램 요구

율이 높았지만, 다른 집단에서는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종교의 경우 여성 수강자 집단에서만 종교가 없는 비율이 낮았을 뿐 다른 집단의 절반 이상은 종교가 없었다. 직업유무의 경우 남성들 중에서 직업이 없다는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 직업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다.

###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나 건강에 대한 관리여부에 관한 정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건강에 관한 문제를 더 많이 호소하는 편이었는데, 이는 여성들의 연령이 남성들보다 더 높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건강관리를 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표 3>에 제시했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응답이 가능했다. 남성의 경우 건강관리 방법으로 절반 이상이 운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을 했으며, 또 술이나 담배를 절제한다는 응답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여성의 경우 여성에 비하여 운동실시로 건강관리를 한다는 비율이 낮았지만, 수강자 집단이 비수강자 집단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남녀 모두 수강자 집단이 비수강자에 비하여 식사조절에 의하여 건강을 관리한다는 응답빈도가 더 높은 편이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단위: n (%)]

| 변수     | 구분  | 남 자       |           | 여 자       |           |
|--------|-----|-----------|-----------|-----------|-----------|
|        |     | 비수강자      | 수강자       | 비수강자      | 수강자       |
| 건강한가?  | 그렇다 | 56 (77.8) | 36 (80.0) | 49 (54.4) | 48 (64.0) |
|        | 아니다 | 16 (22.2) | 9 (20.0)  | 41 (45.6) | 27 (36.0) |
| 만성질환   | 있다  | 27 (37.5) | 12 (26.7) | 60 (66.7) | 44 (58.7) |
|        | 없다  | 45 (62.5) | 33 (73.3) | 30 (33.3) | 31 (41.3) |
| 2주간    | 있다  | 26 (36.1) | 10 (22.2) | 53 (58.9) | 30 (40.0) |
|        | 없다  | 46 (63.9) | 35 (77.8) | 37 (41.1) | 45 (60.0) |
| 건강문제   | 없다  | 46 (63.9) | 35 (77.8) | 37 (41.1) | 45 (60.0) |
|        | 한다  | 60 (83.3) | 37 (82.2) | 55 (61.1) | 61 (81.3) |
| 건강관리여부 | 한다  | 60 (83.3) | 37 (82.2) | 55 (61.1) | 61 (81.3) |
|        | 안한다 | 12 (16.7) | 8 (17.8)  | 35 (38.9) | 14 (18.7) |
| 계      |     | 72(100.0) | 45(100.0) | 90(100.0) | 75(100.0) |

<표 3>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리 방법 [단위: n (%)]

| 건강관리방법  | 남 자            |               | 여 자            |               |
|---------|----------------|---------------|----------------|---------------|
|         | 비수강자<br>(n=72) | 수강자<br>(n=45) | 비수강자<br>(n=90) | 수강자<br>(n=75) |
| 운 동 실 시 | 38 (52.8)      | 24 (53.3)     | 22 (24.4)      | 32 (42.7)     |
| 술·담배 절제 | 29 (40.3)      | 20 (44.4)     | -              | 3 (4.0)       |
| 보 약 복 용 | 7 (9.7)        | 7 (15.6)      | 7 (7.8)        | 10 (13.3)     |
| 식 사 조 절 | 13 (18.1)      | 21 (46.7)     | 10 (11.1)      | 27 (36.0)     |
| 정기건강진단  | 2 (2.8)        | 9 (20.0)      | -              | 13 (17.3)     |
| 치료제 복용  | 7 (9.7)        | 9 (20.0)      | 18 (20.0)      | 25 (33.3)     |
| 대 체 요 법 | -              | 8 (17.8)      | 3 (3.3)        | 11 (14.7)     |
| 온 천 욕   | -              | 8 (17.8)      | 9 (10.0)       | 16 (21.3)     |
| 기 타     | 14 (19.4)      | 3 (6.7)       | 8 (8.9)        | 1 (1.3)       |

주: 중복응답임

####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상태

조사대상자의 한달 용돈의 액수, 용돈출처, 용돈의 정도를 조사한 경제적인 상태는 <표 4>와 같다. 한달 용돈의 액수가 15만원 이상인 비율은 여성보다도 남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들의 경우 비수강자 집단이 수강자 집단보다 10만원 미만의 비율이 더 높았다. 아마도 이는 여성 비수강자 집단의 연령이 수강자보다 더 높았던 것과 관련이 큰 것 같다. 용돈의 출처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본인이 직접 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남녀모두 가족의 송금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남성보다도 여성에서 가족송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직접 벌고 있다’는 반응과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용돈의 정도에 대해서는 수강자보다도 비수강자 집단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여성 수강자 집단에서 용돈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무래도 수강자 집단이 비수강자 집단보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용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 노인교육 프로그램 요구

<표 4>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상태 [단위: n (%)]

| 변 수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 비수강자      | 수강자       | 비수강자      | 수강자       |
| 한달 용돈<br>(만원) | 0-4         | 6 (8.3)   | 2 (4.4)   | 20 (22.2) | 5 (6.7)   |
|               | 5-9         | 18 (25.0) | 5 (11.1)  | 22 (24.4) | 20 (26.7) |
|               | 10-14       | 11 (15.3) | 9 (20.0)  | 34 (36.7) | 31 (41.3) |
|               | 15-29       | 35 (48.6) | 16 (35.6) | 14 (15.6) | 8 (10.7)  |
|               | 30+         | 2 (2.8)   | 13 (28.9) | 1 (1.1)   | 11 (14.7) |
|               | 본 인         | 30 (42.7) | 20 (44.4) | 13 (14.6) | 19 (25.7) |
| 용돈출처*         | 임대료, 집세 배당금 | -         | 11 (24.4) | 1 (1.1)   | 6 (8.1)   |
|               | 가족충금        | 16 (22.2) | 12 (26.7) | 37 (41.6) | 35 (47.3) |
|               | 수 당         | -         | -         | 3 (3.4)   | -         |
|               | 연금, 유족보조료   | 27 (37.5) | 14 (31.1) | 36 (40.5) | 9 (12.2)  |
|               | 생활보조비       | 2 (2.8)   | 2 (4.4)   | 2 (2.3)   | 7 (9.5)   |
| 용돈정도          | 기 타         | 2 (2.8)   | -         | 1 (1.2)   | 3 (4.1)   |
|               | 넉넉하다        | 56 (82.4) | 30 (68.2) | 60 (74.1) | 39 (53.4) |
|               | 부족하다        | 12 (17.6) | 14 (31.8) | 21 (25.9) | 34 (46.6) |
| 계             |             | 72(100.0) | 45(100.0) | 90(100.0) | 75(100.0) |

\* 용돈출처는 중복응답임

### 조사대상자의 문화유산 보유상태

조사대상자들에게 차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특기나 문화유산이 있는지를 질문했을 때 우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기에 대해서 남녀 모두 수강자와 비수강자 구분 없이 예절교육을 중요하게 거론했다. 또 남성들은 수강자와 비수강자 모두 ‘제사상 차리는 법’과 ‘한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여성들은 수강자와 비수강자 모두 ‘토속음식’을 손꼽았다. 자신의 특기가 아니라 차세대에 물려줄 문화유산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자의 경우 전통예절과 전통가옥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여자의 경우 전통예절과 전통음식을 손꼽았다. 그밖에 한복이라는 응답 비율도 높았고, 또 수강자 집단에서는 한국 고유의 ‘차’라는 응답도 꽤 있었다.

<표 5> 조사대상자들의 문화유산 보유상태 [단위: n (%)]

| 구 분  | 내 용     | 남              | 자             | 여              | 자             |
|------|---------|----------------|---------------|----------------|---------------|
|      |         | 비수강자<br>(n=72) | 수강자<br>(n=45) | 비수강자<br>(n=90) | 수강자<br>(n=75) |
| 특 기  | 제사상 차림  | 16 (22.2)      | 24 (53.3)     | 6 (6.7)        | 19 (25.3)     |
|      | 지방놀이문화  | 8 (11.1)       | 8 (17.8)      | -              | 5 (6.7)       |
|      | 토 속 음 식 | 1 (1.4)        | 2 (4.4)       | 36 (40.0)      | 30 (40.0)     |
|      | 다 도     | 1 (1.4)        | -             | 2 (2.2)        | 4 (5.3)       |
|      | 한 문     | 15 (20.8)      | 16 (35.6)     | 1 (1.1)        | 8 (10.7)      |
|      | 예 절 교 육 | 15 (20.8)      | 18 (40.0)     | 12 (13.3)      | 25 (33.3)     |
|      | 기 타     | 22 (30.6)      | 1 (2.2)       | 35 (38.9)      | 8 (10.7)      |
| 문화유산 | 전 통 가 옥 | 12 (16.7)      | 10 (22.2)     | 3 (3.4)        | 2 (2.7)       |
|      | 전 통 차   | 1 (1.4)        | 7 (15.6)      | 2 (2.3)        | 10 (13.3)     |
|      | 전 통 음 식 | 3 (4.2)        | 9 (20.0)      | 29 (32.2)      | 33 (44.0)     |
|      | 전 통 예 절 | 24 (33.3)      | 32 (71.1)     | 18 (20.0)      | 37 (49.3)     |
|      | 한 복     | 7 (7.9)        | 5 (11.1)      | 15 (16.7)      | 8 (10.7)      |
|      | 천 연 염 색 | 2 (2.8)        | -             | 1 (1.1)        | 1 (1.3)       |
|      | 기 타     | 30 (41.7)      | 4 (8.9)       | 29 (32.2)      | 6 (8.0)       |

#### 조사 대상자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실태

단체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참가하는가를 질문한 문항에 남녀 모두 수강자 집단은 절대 다수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비수강자 집단은 대다수가 그렇다고 답했다 (<표 6> 참조). 이와 같은 차이는 수강자 집단이 이미 노인대학 등에 참석해본 결과에 의한 자명한 것이다. 또 참여한다고 응답했을 경우 어느 정도 자주 참여하는가에 대해서도 남성 수강자 집단에서 적극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어떠한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는가에 대해서는 남성은 친구들과의 모임 그리고 여성은 종교 모임이 가장 보편적인 응답이었고, 수강자의 경우 전문단체나 노인대학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 자신과 가깝게 지내는 교우가 있는가를 물었을 때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했지만, 여성 비수강자 집단에서의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여가활동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강자들은 대다수가 그렇

## 노인교육 프로그램 요구

<표 6> 조사 대상자의 사회활동 실태 [단위: n (%)]

| 변 수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 비수강자      | 수강자       | 비수강자      | 수강자       |
| 참여여부  | 한 다    | 19 (26.4) | 36 (80.0) | 28 (31.1) | 54 (72.0) |
|       | 안 한 다  | 53 (73.6) | 9 (20.0)  | 62 (68.9) | 21 (28.0) |
| 참여횟수  | 자주 참가  | 1 (5.2)   | 19 (42.2) | 6 (22.2)  | 15 (28.3) |
|       | 가끔 참가  | 17 (30.9) | 17 (37.8) | 19 (70.4) | 37 (69.8) |
|       | 드물게 참가 | 1 (5.2)   | -         | 3 (7.4)   | 2 (1.9)   |
| 모임 종류 | 노인회    | 3 (15.8)  | 8 (22.2)  | 4 (14.4)  | 8 (14.8)  |
|       | 노인대학   | -         | 7 (19.4)  | 4 (14.4)  | 36 (66.7) |
|       | 전문단체모임 | 1 (5.2)   | 16 (44.4) | -         | 8 (14.8)  |
|       | 친구모임   | 11 (57.9) | 21 (58.3) | 6 (21.4)  | 19 (35.1) |
|       | 가족모임   | 4 (21.0)  | 3 (8.3)   | 3 (10.7)  | 9 (16.7)  |
|       | 종교모임   | 6 (31.6)  | 12 (33.3) | 15 (53.5) | 20 (37.0) |
|       | 경로당    | 1 (5.2)   | 8 (22.2)  | 6 (21.4)  | 13 (24.0) |
|       | 기타     | -         | 6 (16.7)  | 1 (3.6)   | 13 (24.0) |
| 친구노인  | 있다     | 65 (91.6) | 42 (95.5) | 75 (83.3) | 67 (89.3) |
|       | 없다     | 6 (8.4)   | 2 (4.5)   | 15 (16.7) | 8 (10.7)  |
| 계     |        | 72(100.0) | 45(100.0) | 90(100.0) | 75(100.0) |

주) 1.모임의 종류는 중복 응답임.

2.모임 종류의 기타는 2인 이상의 계모임에 해당함.

다고 응답한 반면, 비수강자 집단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들이 즐기는 여가의 내용으로는 의외로 신문보기, 라디오나 TV 청취 등의 응답이 많이 나왔고, 또 마땅한 여가활동을 찾지 못해서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종교생활을 여가활동이라고 답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 조사대상자의 노인교육 요구도

앞으로 노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 참여하고 싶은가의 의사를 물을 때 수강자 집단의 상당수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표 8> 참조), 비수강자 집단의 경우 남성의 ⅓ 이상 그리고 여성의 45% 이상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의사를 밝힌 자들을 토대로 어떤

<표 7> 조사대상자의 여가활동 실태 [단위: n (%)]

| 변수    | 구분            | 남자             |               | 여자             |               |
|-------|---------------|----------------|---------------|----------------|---------------|
|       |               | 비수강자<br>(n=72) | 수강자<br>(n=45) | 비수강자<br>(n=90) | 수강자<br>(n=72) |
| 참여여부  | 한다            | 43 (59.7)      | 41 (91.1)     | 39 (43.3)      | 60 (80.0)     |
|       | 안한다           | 29 (40.3)      | 4 (8.9)       | 51 (56.7)      | 15 (20.0)     |
| 여가종류* | 서예, 악기 연주, 합창 | 1 (1.4)        | 10 (22.2)     | 1 (1.1)        | 4 (5.4)       |
|       | 수집            | 1 (1.4)        | 5 (11.1)      | -              | 1 (1.3)       |
|       | 신문, 책읽기       | 11 (15.3)      | 22 (48.9)     | 2 (2.2)        | 10 (13.3)     |
|       | TV, 라디오       | 11 (15.3)      | 16 (35.6)     | 29 (32.2)      | 38 (50.7)     |
|       | 종교생활          | 10 (13.9)      | 14 (31.1)     | 20 (22.2)      | 41 (54.7)     |
|       | 화투, 장기, 바둑    | 10 (13.9)      | 10 (22.2)     | 8 (8.9)        | 9 (12.0)      |
|       | 친지 모임         | 15 (20.8)      | 16 (35.6)     | 16 (17.8)      | 20 (26.7)     |
|       | 운동, 등산        | 24 (33.3)      | 23 (51.1)     | 5 (5.6)        | 9 (12.0)      |
|       | 낚시            |                |               |                |               |
|       | 뜨개질, 수예바느질    | -              | -             | 6 (6.7)        | 9 (12.0)      |

\* 여가종류는 중복 응답임

내용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가를 물을 때 건강에 관련된 분야라는 대답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많았고, 대부분의 대상자가 친구에게 교육을 권유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여가교육 중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사항은 남녀 모두 여행이었으며 (<표 9> 참조), 교양교육 중에서는 남자의 경우 비수강자 집단은 가족대화법 그리고 수강자 집단은 법률강좌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비수강자와 수강자 집단 모두 가족대화법을 원하였다.

또 조사대상자들에게 희망하는 직업교육 분야를 물었을 때 남성의 경우 비수강자 집단은 대부분 기술습득을 위한 반면, 수강자 집단의 절대다수는 취업정보와 생활경제 분야라고 답했다 (<표 10 참조>). 여성의 경우 비수강자 집단은 기술습득이나 생활경제의 분야를 희망한 비율이 높았으며, 수강자 집단은 취업정보와 생활경제에 관한 분야를 희망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비수강자들이 기술습득에 관한 내용에 관심이 높지만, 수강자 집단은 취업정보나 생활경제에 관심이 높았다. 그와 같은 차이는 수강자에 비하여 비수강자들의 연령이 더

## 노인교육 프로그램 요구

<표 8> 조사대상자의 노인교육 요구도 [단위: n (%)]

| 변 수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 비수강자      | 수강자       | 비수강자      | 수강자       |
| 참여희망         | 예                 | 46 (63.9) | 35 (79.6) | 48 (54.6) | 63 (87.5) |
|              | 아니오               | 26 (36.1) | 10 (20.4) | 40 (45.4) | 9 (12.5)  |
| 희망교육<br>기관   | 대학부설사회교육원         | 7 (15.6)  | 5 (14.2)  | 5 (10.7)  | 1 (1.6)   |
|              | 종교시설노인학교          | 6 (13.3)  | 6 (17.1)  | 14 (29.8) | 15 (23.8) |
|              | 노인회부설노인대학         | 11 (24.4) | 7 (20.0)  | 14 (29.8) | 19 (30.2) |
|              | 사회복지시설노인대학        | 14 (31.1) | 3 (8.6)   | 10 (21.3) | 10 (15.9) |
|              | 사설유료대학            | 5 (11.1)  | 14 (40.0) | 2 (4.3)   | 17 (27.0) |
| 희망교육<br>종류*  | 문화회관              | 2 (4.4)   | -         | 2 (4.3)   | 1 (1.6)   |
|              | 취미교육              | 5 (7.0)   | 7 (15.6)  | 10 (11.3) | 10 (13.5) |
|              | 건강교육              | 47 (65.2) | 19 (42.2) | 60 (68.1) | 55 (74.3) |
|              | 여가교육              | 2 (2.8)   | 6 (13.3)  | 7 (8.0)   | 5 (6.8)   |
|              | 교양교육              | 3 (4.1)   | 2 (4.4)   | 5 (5.6)   | 6 (8.1)   |
|              | 지역사회내용<br>직업 및 기능 | 7 (9.7)   | 12 (26.7) | 5 (5.7)   | 6 (8.1)   |
| 교육방법<br>선호   | 강 의               | 21 (45.0) | 20 (57.1) | 20 (41.7) | 38 (61.3) |
|              | 비디오               | 2 (4.4)   | -         | 1 (2.0)   | -         |
|              | 관찰견학              | 10 (21.7) | 8 (22.8)  | 11 (23.0) | 16 (14.6) |
|              | 토의학습              | 13 (28.2) | 7 (20.0)  | 16 (33.3) | (13.0)    |
| 친구에게<br>권유의사 | 예                 | 44 (95.7) | 45(100.0) | 44 (93.6) | 62 (93.3) |
|              | 아니오               | 2 (4.4)   | -         | 3 (6.4)   | 1 (1.6)   |
| 합계           |                   | 72(100.0) | 45(100.0) | 90(100.0) | 75(100.0) |

\* 희망하는 교육종류는 중복응답임.

<표 9> 조사대상자의 여가 및 교양 교육 요구도 [단위: n (%)]

| 변 수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 비수강자      | 수강자       | 비수강자      | 수강자       |
| 여가교육<br>우선순위 | 예능 계열  | 8 (11.2)  | 14 (31.1) | 8 (9.3)   | 15 (20.2) |
|              | 사교모임   | 14 (19.7) | 14 (31.1) | 27 (31.4) | 30 (40.5) |
| 교양교육<br>우선순위 | 여행     | 49 (69.0) | 17 (37.8) | 51 (59.3) | 32 (43.2) |
|              | 자서전 쓰기 | 14 (21.2) | 5 (11.1)  | 20 (23.5) | 3 (4.1)   |
| 교양교육<br>우선순위 | 법률강좌   | 14 (21.2) | 21 (46.7) | 13 (15.2) | 11 (15.0) |
|              | 가족대화법  | 22 (33.3) | 19 (42.2) | 43 (50.6) | 47 (64.3) |
|              | 생활외국어  | 16 (24.2) | 3 (6.7)   | 9 (10.6)  | 12 (16.4) |
| 계            |        | 72(100.0) | 45(100.0) | 90(100.0) | 72(100.0) |

젊었던 것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희망하는 사회교육 분야로는 모든 집단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울러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도 큰 편이었다.

#### 차세대와 공동교육 참여실태 및 희망

젊은 세대들과 함께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보았는가의 질문에 비수강자의 절대다수가 그런 경험이 없다고 답한 반면, 수강자 집단에서는 상당수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표 11> 참조). 또 앞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참여하기를 희망하는가의 질문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대다수가 그렇다고 답했다. 남성들의 경우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기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젊은 세대들과 참여하고 싶다는 반응 비율이 높았고, 여성들의 경우 가족대화기법 이외에도 신세대 노래, 실용외국어 습득에 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 고 찰

본 조사는 노인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수강자 집단)과 그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비

<표 10> 직업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요구 [단위: n (%)]

| 변수   | 구분    | 남자        |           | 여자        |           |
|------|-------|-----------|-----------|-----------|-----------|
|      |       | 비수강자      | 수강자       | 비수강자      | 수강자       |
| 직업교육 | 기술습득  | 33 (71.1) | 8 (9.9)   | 20 (44.4) | 5 (8.8)   |
|      | 취업정보  | 4 (8.7)   | 13 (37.1) | 4 (8.9)   | 27 (47.4) |
|      | 생활경제  | 9 (19.6)  | 14 (40.0) | 21 (46.7) | 25 (43.4) |
| 사회교육 | 대인관계  | 21 (46.7) | 8 (22.9)  | 14 (33.3) | 28 (49.1) |
|      | 환경보호  | 3 (6.7)   | 3 (8.6)   | 5 (12.0)  | 4 (7.0)   |
|      | 봉사활동  | 15 (33.3) | 14 (40.0) | 21 (50.0) | 21 (36.8) |
|      | 청소년지도 | 6 (13.3)  | 10 (28.0) | 2 (4.8)   | 4 (7.02)  |
| 계    |       | 72(100.0) | 45(100.0) | 90(100.0) | 72(100.0) |

## 노인교육 프로그램 요구

<표 11> 차세대와 공동교육 참여실태 및 희망 [단위: n (%)]

| 변수        | 구분        | 남 자       |           | 여 자       |           |
|-----------|-----------|-----------|-----------|-----------|-----------|
|           |           | 비수강자      | 수강자       | 비수강자      | 수강자       |
| 참여여부      | 한다        | 4 (5.6)   | 24 (53.3) | 6 (6.7)   | 26 (36.6) |
|           | 안한다       | 67 (94.4) | 21 (46.7) | 83 (92.2) | 45 (63.4) |
| 참여희망      | 예         | 37 (77.1) | 39 (86.7) | 46 (71.9) | 62 (87.3) |
|           | 아니오       | 11 (22.9) | 6 (13.3)  | 18 (28.1) | 9 (12.7)  |
| 교육프로그램 요구 | 인터넷/전자상거래 | 24 (33.8) | 16 (35.6) | 6 (6.7)   | 12 (17.4) |
|           | 신세대 노래    | -         | 5 (11.0)  | 11 (12.4) | 24 (34.8) |
|           | 실용외국어     | 15 (21.1) | 9 (17.8)  | 14 (15.7) | 14 (20.3) |
|           | 가족대화법     | 16 (22.5) | 16 (35.6) | 30 (33.7) | 17 (24.6) |
|           | 기 타       | 16 (22.5) | -         | 28 (31.5) | 2 (2.9)   |
| 계         |           | 72(100.0) | 45(100.0) | 90(100.0) | 72(100.0) |

수강자 집단)간의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요구가 어느 정도 다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그렇지만 조사대상자 선발이 전집을 대표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집락추출 방법에 의존하다보니 실제 조사대상자가 된 노인들이 조사 자체에 대하여 매우 비협조적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조사대상자가 지역에 따라서 골고루 선정되도록 하다보니, 비수강자 집단의 연령이 수강자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서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발생했다. 역시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본 조사에 참여한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여러 가지 특성에서 차이가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공통적인 면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인생을 즐기는 차원의 여가나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 깊다. 상당수의 조사대상자들이 종교적인 모임, 친구와의 만남, 또는 경로당 출입을 사회활동의 영역으로 답했다. 또 등산이나 낚시 등이라고 표현한 다수의 남성들도 있었지만, 남녀 모두 신문 읽기, 라디오 청취, TV 시청, 종교활동을 주요한 여가생활로 응답하였다. 물론 종교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참여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있지만 (허정무, 2001), 본 조사의 대상자들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 활동이나 여가 활동이라고 답했던 것이 아니라 종교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제외하고는 다른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했던 차원에서 그런 응답이 나왔던 것 같았다.

또 다른 특성으로는 현재 사회 및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런 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도할 의지가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나중에 노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었다. 반면에 그런 프로그램의 내용이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높은 편이었다 (조유향, 1999).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자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 고생을 하고있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본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들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한 두 가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하나는 현재 한국노인들이, 특히 고령자일수록, 학력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 못한 까닭에서인지, 자기 자신의 발전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 동안 희생을 미덕으로 살아온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노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노인들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찾아다니길 기대하지 말고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노인들의 사고 전환을 유도한 상태에서는 그들의 요구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노인들도 노후생활을 보다 건강한 상태로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강옥모 (2000). *21세기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방향*. 경상대학교 노인건강 연구소 주최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p. 10).

## 노인교육 프로그램 요구

---

- 김종서·남정길·정지웅·이용환 (1982).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 아산복지사업재단 (1985). *노인복지 편람* (p. 211).
- 원영신 (1997). 여가교육으로 행해지는 노인체육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 (3), 36-52.
- 윤진 (1986). *성인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세영 (1990). *우리나라 노인복지 프로그램 실태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우 (1990). *정년퇴직 노인들의 퍼스넬리티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춘식 (1985).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유풍출판사.
- 정경배 (1999).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 방향. *노인복지 총서*, 통권14호.
- 정종식 (1997). 평생학습 사회에서의 노인교육. *한국노년학연구*, 6, 89-110.
- 조유향 (1999). 농촌지역 주민의 보건교육에 관한 실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3 (2), 161-173.
- 한명진 (1992). *도시노인의 여가활용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아파트거주노인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무 (2001).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종교기관의 노인교육활동 참여. *한국노년학*, 21 (2), 37-52.

### The Need of Education Program for the Elderly

Myoung-Suk Her                      Yoo Hyang Cho  
Songjuk Whole Life Culture Center   Chodang university,

Hak Rol Kim & Ki Soon Kim  
Medical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lineate some characteristics between middle-aged/elderly persons (group A) who have ever participated in any educational program for the senior citizens and those (group B) who have never done. However, the basic characteristics, such as educational level and age, between group A and group B, as well as between men and women were found different from the baseline. City and 120 persons who participated in education program for the elderly. Nevertheless, some general characteristics for the participants were found. For instance, the contemporary Korean elderly persons did not show active participation socially, and not have leisure enjoying their life.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ir health condition and cultural backgrounds.

(논문접수일: 2001년 10월 27일)  
(수정논문접수일: 2001년 11월 16일)  
(논문게재승인일: 2001년 11월 29일)